

[문(文): 삶과 꿈 기말레포트]



『돈 끼호테』에 나타나는 작가 세르반테스의 여성관

국어국문학과 202221603 박정우
문화콘텐츠학과 202321549 최진영

목차

1. 서론
 2. 16세기 말~17세기 초 보편적인 여성상
 3. 세르반테스의 이상적인 여성상
 4. 『돈 끼호테』의 여성상
 - 4.1. 자유로운 여성, 마르셀라
 - 4.2. 진취적인 여성, 루스신다와 도로페아
 - 4.3. 순종적인 여성, 소라이다와 까밀라
 5. 결론
- <참고문헌>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1. 서론

미겔 데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1547~1616)의 『돈 키호테』는 1605년에 1권이 출간되었으며, 열렬한 인기로 1615년에 2권이 출간되었다.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어 출간된 지 4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소설이라고 평가되고 있다.¹⁾ 세르반테스는 작은 시골 마을 ‘라 만차’에 사는 귀족 영감, 돈 키호테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며, 그를 기사 소설에 빠져 미쳐버린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당대의 기사 소설을 풍자하고자 했다. 소설은 돈 키호테가 모험을 지속하는 동안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에피소드 형식으로 전개된다. 주요 인물로는 주인공 돈 키호테를 중심으로 그를 따르며 함께 모험하는 하인 싄초 빠사, 돈 키호테의 친구인 신부 빠로 빠레스, 이발사 니콜라스 등이 있는데,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 여성 인물들 또한 비중 높게 등장한다.

여성 인물들 중 주목해 볼 만한 인물로 ‘목동 그리소스또모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르셀라와, ‘까르데니오, 돈 페르난도, 루스신다, 도로페아 네 남녀의 얽힌 사랑 이야기’에 등장하는 루스신다, 도로페아가 있다. 이들은 소설 속에서 작품이 쓰인 16세기 말~17세기 초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본고는 보편적인 여성상과는 매우 다른 모습의 여성 인물을 등장시키며 작가 세르반테스가 보여주고자 했던 바가 무엇일지 알아볼 것이다. 하지만, 『돈 키호테』에는 당시의 보편적인 여성상에 들어맞는 여성 인물 또한 등장한다. ‘포르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라이다와, ‘호기심 많은 시건방진 친구 이야기’에 등장하는 까밀라가 그 예시이다. 세르반테스가 이중적인 여성관을 보여준 것인지, 혹은 일관된 여성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편적인 여성상을 보여준 것인지 분석해본다.

『돈 키호테』에 나타나는 세르반테스의 여성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6세기 말~17세기 초 시대적 상황을 알아보고 그 속에서 여성상이 어떠했는지 알아본다. 이어서 보편적인 여성상이 반영된 그 당시의 작품들 속 여성 등장인물까지 살펴볼 것이다. 이후 세르반테스의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을 통해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여성상을 알아보고, 『돈 키호테』에 이르러 그 여성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종합적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여성관을 알아보고, 그가 보여준 여성관의 의의와 그의 반영인 『돈 키호테』의 의의까지 찾아본다.

2. 16세기 말~17세기 초 보편적인 여성상

『돈 키호테』가 쓰인 시기이자 세르반테스의 활동 시기는 ‘16세기 말~17세기 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유럽은 신을 중심으로 한 암흑의 중세 시대가 지나고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많은 부분에 있어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중세 초기부터 이어진 당시 여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극히 경멸적이었는데, 성서적 해석으로도 에덴동산에서 악마의 꾀임에 쉽게 속아버린 이브 때문에 여인이란 존재는 매우 나쁘게 인식되었다.²⁾ 게다가 반 종교개혁 시대의 스페인에서 그 같은 선입관은 여인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 ‘확고한 신념을 갖지 못하며, 올바른 판단력을 지니지 못한 존

1) 본 논고에서는 『돈 키호테』의 많은 번역본 중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키호테1』(민용태 엮음, 출판사 창비)을 기준으로 하며, 편의를 고려해 『돈 키호테』라고 이하 통칭한다.

2) 안주희, 「[돈키호테] 속에 나타나는 근대적 요소에 대한 연구」, 『중남미연구』 23(2), 2005, 23쪽.

재’, ‘신뢰할 수 없는 존재’, ‘천성적으로 쾌락과 담합하는 존재’로 평가했다.³⁾ 당시 스페인은 ‘여성 혐오주의’가 만연해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은 여성들의 자유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며, 여성들에겐 자신의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어떠한 의사 표현의 자유도 배제되었다.⁴⁾ 또한 여성들은 결혼 후로도 남편들의 의사에 복종하고 시중을 들어야만 했다.⁵⁾ 10대 중반에 결혼한 귀족층 여성들은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남편들에게 절대복종을 해야 하는 종속적인 존재에 불과했다.⁶⁾ 성스러워야 할 결혼은 남성중심사회의 질서를 확고히 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결과 여성은 흔히 남성의 소유물이나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었다.⁷⁾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을 대할 때 여성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남성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남성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조차 힘든 일이었으며, 암전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었다.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구애하는 것은 당연히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결론적으로, 16세기 말~17세기 초 스페인 사회는 중세적 세계관의 연장선상에 있어,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고 제한적이었다.⁸⁾

당시의 보편적인 여성상은 당시 작품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중세문학의 대표적 작품인 『칼릴라 와 딘나』와 『루카르도 백작』을 보면, 여성 등장인물들이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한다. 『칼릴라 와 딘나』에서 그려지는 여성은 음탕하고 간음하는 포주의 이미지이고 『루카르도 백작』에서는 파렴치하며 욕심사납고 변덕스러운 여성들이 등장한다. 중세 시대의 여성상은 『돈 끼호테』가 쓰인 16세기~17세기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당시의 작품 속에서도 동일한 여성상을 발견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가부장 사회 남성들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햄릿은 가부장적인 관념으로 자신의 어머니 거트루드의 ‘재혼’에 대해서 혐오감을 보이는데, 그것이 마치 어머니의 지나친 성욕 때문인 것으로 속단하며 비난을 퍼붓는다.⁹⁾ 거트루드는 남성들의 가치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고, 역할 또한 남성을 불행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¹⁰⁾ 또한 작품 속에서 햄릿은 여자는 무조건 아버지나 오빠의 훈계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자신의 순수한 감정은 다 부정하고 억눌러야 한다는 가치관을 보여주었다.¹¹⁾ 또한 작가는 오펔리아를 수동적이며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시키며 남성 중심 사회의 무기력한 희생양을 보여주었다. 『오셀로』에서 브러밴쇼는 가부장의 권위를 내세워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느냐?”라고 물음으로써, 자식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가부장에 대해 복종하는 것이 미덕임을 강조한다.¹²⁾ 가부장의 훈육대로 여성으로서 남성에게 복종을 다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 또한 오셀로 언제나 여성이 정절을 배신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여성을 부정적인 존재로 몰아가게 되며 결국 비극을 가져오게 한다.¹³⁾ 이처럼 작품을 통해서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당시의 사회적 시선을 엿볼 수 있다.

3) 위의 글, 23쪽.

4) 박철, 「스페인문학: 세르반테스 문학세계에 나타난 유토피아」, 『스페인어문학(구 서어서문연구)』, 30, 2004, 202쪽.

5) 안주희, 앞의 글, 23쪽.

6) 김현란, 「중세 유럽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 혐오 (misogyny) 와 숭배 (cult)-사회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27, 2011, 48쪽.

7) 안주희, 앞의 글, 23쪽.

8) 위의 글, 23쪽.

9) 황정원,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자로서의 여성인물 연구 - 「햄릿」과 「오셀로」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1-12쪽.

10) 위의 글, 14쪽.

11) 위의 글, 15쪽.

12) 위의 글, 26쪽.

13) 위의 글, 27-28쪽.

3. 세르반테스의 이상적인 여성상

지금까지 『돈 키호테』가 쓰인 시대의 보편적인 여성상을 알아보았다. 『돈 키호테』의 여성상을 살펴보기 전, 세르반테스의 다른 작품들을 통하여 그가 추구한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모범소설집』의 여성 등장인물들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세르반테스의 『모범소설집』은 1613년에 출간된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모범소설집』은 총 12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개별적인 이야기이고 그중 9편은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는 이야기이다. 이야기 속에는 16~17세기에 억압받던 여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며, 동시에 사랑에 관한 ‘자유의지’를 나타내는 여성 등장인물도 존재한다. 『모범소설집』에서는 서로 다른 여성상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분석을 통해 세르반테스의 여성관을 명확하게 도출해내고자 한다.

우선, 「질투 많은 에스프레마두라 노인에 관한 소설」에 등장하는 ‘레오노라’를 통해서 당시 시대의 여성상을 살펴보겠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까리살레스’는 오랫동안 방랑하고 재산을 다 써버리지만, 신대륙에서 크게 성공한 뒤 고향 세비아로 돌아와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을 가지고 싶어했다. 그러던 중 길거리에서 어린 레오노라를 발견했고, 까리살레스는 그녀를 결혼 대상으로 생각했다.

“이 소녀는 아름답다. 이 집은 겉모습으로 보아 부자인 것 같지는 않다. 그녀는 어리다. 저렇게 어린 나이니까 나의 의심과 걱정은 붙들어매도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르쳐주는 것들 외에는 다른 좋아하는 것이 없게 되겠지.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을 갖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 그리하여 마침내 레오노라는 까리살레스의 아내가 되었다 그는 먼저 혼례금으로 금화 2만 두카도를 주었다. (『모범소설집2』, 87쪽)

위 장면은 순수한 사랑의 감정보다는 사리사욕을 위해 돈으로 여성을 사 결혼했던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 감금되다시피 키워졌고, 결혼 후에도 남편에게 감시당하면서 살았다. 레오노라는 부모에 의해 까리살레스와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사회에서 격리당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집안일만 하게 된다. 결국,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까리살레스와 레오넬라는 파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작가가 지향하는 여성상이 레오노라가 아님을 보여준다.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결혼이 아니라는 결혼 과정의 비합리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결말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¹⁴⁾

레오노라와는 달리 당시 사회에 대항하는 여성 인물들도 있다. 먼저, 「마음씨 좋은 연인에 관한 소설」에서 등장하는 여성 인물 ‘레오니사’에 대해 살펴보겠다. 작품의 주인공인 리까르도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원하는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녀와 함께 가족모임에서 난동을 부리게 된다. 그 동시에 터키 해적이 모임에 난입해서 리까르도와 레오니사를 터키로 납치해간다.

14) 강신규, 「『모범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목소리」,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31-32쪽..

그대가 고백한 구애의 뜻과 상관되는 일을 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할 경우에는 그 순간에 바로 당신과 결별할 거예요. 당신이 내가 보석 몇 캐럿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싫어요. 나는 자유 상태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을 포로 상태에서 용기 있게 해낼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받아 나는 버리고 단련할수록 더욱 순수하고 깨끗해지는 황금처럼 살 거예요. (『모범소설집1』, 179쪽)

위는 터키에 포로로 잡혀들어간 후에도 성적이고 탐욕적인 분위기에 넘어가지 않고, 아름다움, 분별력, 미덕 등의 지혜로운 특성을 잘 활용하여 자신을 지키는 레오니사의 모습이다. 이런 레오니사의 이성적인 태도와 사고, 정숙함은 리카르도의 여성관을 변화시키기까지 한다. 이후 리카르도는 레오니사라는 여자를 소유물로 보지 않고, 그녀에게 사랑에 관한 선택의 의지를 준다. 이것은 그녀가 ‘자유의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동을 분별할 수 있게 했다. 결국, 레오니사는 포로로 잡힌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분별력, 정숙함 등과 같은 여성의 미덕으로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다음으로 「핏줄의 힘에 관한 소설」에 나오는 여성 인물 ‘레오까디아’가 있다. 레오까디아는 가족과 언덕을 지나고 건달 무리와 마주치게 된다. 그 무리 중 한 명인 로돌포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다. 이후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납치하고, 그녀를 기절시킨 뒤 자신의 욕망을 채운다. 레오까디아는 이에 강하게 저항하여 간신히 빠져나오게 된다. 보통 스페인에서 강간당한 여성들은 자살을 하거나 수녀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지만, 레오까디아는 자신의 순결을 잃은 상태임에도 능동적인 태도로 자신의 명예를 찾고자 개척적인 행동을 보여준다.¹⁵⁾

그러나 우선 네가 해야 할 것은, 딸아, 그 십자가를 잘 간직하고 성모님께 가호를 청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는 또한 네 불행의 증인이었으니 너를 지키기 위해 법 앞에 서는 재판관이 있도록 그 십자가가 도울 거야. 딸아, 한되의 드러난 불명예가 한말의 감춰진 불명예보다 상처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러니 너는 대중 앞에서 주님과 함께 순결하고 명예롭게 살되 속으로 남몰래 순결을 잃었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라. 진정한 불명예는 죄악에 있고 진정한 명예는 마음의 덕에 있느니라. (『모범소설집2』, 63쪽)

처음에 그녀는 자신의 미덕을 통해 자신의 성을 회복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여성의 미덕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육체적인 미덕보다는 내면의 미덕이 더 중요하다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진정한 여성의 미덕을 통해 그녀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상을 얻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레오까디아는 로돌포와 결혼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레오까디아의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결혼이라는 결과를 통해 실현시킴으로써 세르반테스가 그러한 여성상을 지지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두 아가씨에 관한 소설」에 나오는 여성 인물 ‘떼오도시아’와 ‘레오까디아’이다.¹⁶⁾ 이 이야기는 떼오도시아와 레오까디아와 함께 자신들에게 사랑을 약속하고 사라져버린 안토니오를 찾기 위해 각각 남장을 하고 길을 나서는 이야기이다.¹⁷⁾

15) 위의 글, 89쪽.

16) 여기서 ‘레오까디아’는 앞서 언급한 「힘의 핏줄에 관한 소설」의 ‘레오까디아’와 다른 동명의 인물이다.

17) 강신규, 앞의 글, 86쪽.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들은 가볍게 당나귀에서 뛰어내려 자신들의 칼과 단검을 움켜쥐고 아무 두려움 없이 군중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한여자는 마르코 안토니오의 이편에, 또다른 여자는 저편에 섰다. 이미 말한 바로 그 파란 옷의 사나이였다. …… 두 여자는 저 전설적인 여전사들 브라다만페와 마르피사이거나 이폴리따와 뻘따실레아였다.¹⁸⁾ (『모범소설집2』, 254-255쪽)

이후 그들은 남편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칼을 들고 싸우는 용맹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당시 여성이 남성과 같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흔치 않던 일이었다. 작가 세르반테스는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 상황에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훌리오 로드리게스 루이스(Julio Rodriguez-Luis)는 레오까디아를 설명하면서 괴로움에도 절망 대신 이성을 갖고 분별력 있게 처신하는 도덕적 캐릭터라고 설명했다.¹⁹⁾

『모범소설집』의 시대적 배경은 16~17세기인 만큼, 작품 속에서 여성들이 억압받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세르반테스는 레오니사, 레오까디아 등 다양한 여성 인물을 통해서 당시 시대를 극복하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이야기 대부분은 여성 인물이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지만, 지혜로운 사고방식이나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태도로 이를 극복하는 구조인데, 당시 보편적인 여성상과는 다른 여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범소설집』에도 레오노라와 같이 그 당시 보편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인물도 있지만, 그 여성의 결말이 파경에 이른다는 점을 보아 작가는 그 여성상을 지지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시대 관습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여성 인물들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세르반테스가 이중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다음 장에 이어서, 『돈 키호테』에서 나타나는 여성상을 살펴보면 세르반테스의 여성관을 더 깊이 탐구해보고자 한다.

4. 『돈 키호테』의 여성상

지금까지 세르반테스의 다른 작품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을 통해 그의 여성관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돈 키호테』의 여성 인물들을 통해 작가 세르반테스의 여성관을 알아볼 것이다. 먼저 많은 여성 인물 중 비교적 비중이 높고 당시에 쉽게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여성상으로 나타나는 3명의 인물, 마르셀라, 루스신다, 그리고 도로페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후 당시의 보편적인 여성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여성 인물인 소라이다, 까밀라를 살펴보고, 세르반테스의 여성관을 종합해본다.

4.1. 자유로운 여성, 마르셀라

마르셀라는 목동 그리소스포모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이다. 마르셀라는 매우 아름다워 다수의 청년들이 그녀에게 사랑에 빠진다. 학생 출신 목동인 그리소스포모는 마르셀라를 짝사랑하다가 그녀의 냉정함에 자살하고 만다. 그리소스포모의 친구 암브로시오를 비롯한 많은 사람은 그리소스포모의 장례식에서 마르셀라의 냉정함에 대해 비난하는데, 마르셀라는 그리소스포모의 장례식에 찾아와 그의 죽음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18) 각각의 여전사들은 아리오스토의 서사시 『성난 오를란도』의 여전사들이다.

19) 강신규, 앞의 글, 89쪽

“그대들이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하거나 진정으로 좋아하면 나도 그대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하느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짜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알기로는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많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한편 사랑을 당하는 쪽에서 보면, 내가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난 내가 아름다워서 사랑해, 난 비록 추하게 생겼지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해주어야 해’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지요. 하지만, 둘 다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꼭 마음이 같이 통한다는 법도 없지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진정한 사랑이란 둘이 아니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말은 그렇다지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나를 진정으로 좋아한다는 말에 의무감을 느껴 제가 억지로라도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데 무엇 때문인가요?”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 1』, 186쪽.)

소설이 쓰인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보통 사랑을 먼저 구애하는 쪽은 남성이었고 여성은 남성의 구애를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르셀라는 사랑이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며, 사랑은 마음이 통해야 하는 것이지 사랑을 하는 쪽이 사랑을 당하는 쪽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을 당하는 쪽이 꼭 사랑을 하는 쪽을 사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세르반테스는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면 여성은 무조건 남성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시의 시대관을 부정하면서, 여성도 남성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²⁰⁾

“저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살고자 이 산과 들의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 저는 자유로운 신분이라서 무엇에 얽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누구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을 속이고 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을 놀리고 다른 사람과 놀아나지도 않습니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 1』, 187-189쪽.)

마르셀라는 그리소스토포의 죽음에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며 분명하게 말하고, 위와 같이 자신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자유의지’를 보인다. 그녀는 여성은 남성에게 의해 선택되어야 하고 남성이 선택하면 그 선택에 순응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목동이 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인 ‘자유’라는 목표를 위해 목동이 된 것이다.

마르셀라의 말을 듣고 있던 모두가 그 말에 감탄하고 수긍하는데, 심지어 돈 끼호테는 그녀는 그리소스토포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충분히 밝혔으며 누구도 그녀를 따라갈 생각은 말라며 소리까지 친다. 마르셀라의 말에 동의하는 인물들을 통해, 마르셀라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작가는 드러내고 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자유의지를 가져야 하며, 여성이 남성의 사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마르셀라의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여성상이다.

에디스 카메론(Edith Cameron)은 마르셀라가 자유의지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며 권리 또한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며 그녀를 ‘시대에 저항하는 여성’이라고 평가했다.²¹⁾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으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

20) 박철, 「돈키호테에 나타난 페미니즘」, 『중남미연구』 34(1), 2015, 128쪽.

유주의는 근대 이후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 근대 이후부터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써 자유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고, 개인이 자신의 주인으로서 모든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²²⁾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생활방식을 자신의 취향대로 이끌며, 결혼상대자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직업을 원하는 대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²³⁾ 세르반테스는 결혼에 있어 여인의 자유의지를 중요시 했으며, 남성과 여성의 사랑에 기초한 결혼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다.²⁴⁾ 세르반테스는 자유주의가 도래하지 않은 시대에서 매우 근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신의 이념을 『돈 키호테』 속 여성 인물에게 적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여성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²⁵⁾

4.2. 진취적인 여성, 루스신다와 도로페아

루스신다와 도로페아는 24장부터 시작되는 까르데니오, 돈 페르난도, 루스신다, 돈 페르난도 네 남녀의 얽힌 사랑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이다. 이들 또한 마르셀라와 마찬가지로 당대의 시대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특이한 모습으로 소설 속에서 등장한다. 먼저 루스신다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루스신다는 양갓집 규수이며, 까르데니오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생각하지만 돈 페르난도와 결혼 서약을 하게 되고, 결국 결혼식을 끝내고 자살할 것을 계획한다. 하지만 결혼식 도중 기절을 해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집을 떠나 수도원으로 간다. 수도원에서 지내던 그녀를 돈 페르난도가 복수를 위해 그녀를 납치하고, 까르데니오가 있던 객줏집에 도달한다.

“돈 페르난도 나리, 이젠 저를 놓아주세요. 당신이라는 사람의 지체와 체통을 지켜주세요. …… 당신의 그 많은 선물도, 언약도, 당신의 위협도, 당신의 그 불손한 접근도 제게는 저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을 벗어나게 하지 못했어요. …… 이젠 분명히 모든 걸 깨닫고 돌아가주세요. 사랑을 분노케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절망케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으실 테니까요. 차라리 저를 절망 속에 죽여주세요. 제 착한 남편 앞에서 죽어가는 것으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쩌면 제 죽음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언약을 지켰다는 걸 보여주게 되겠지요.”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키호테 1』, 561-562쪽.)

위는 까르데니오를 마주한 루스신다가 돈 페르난도에게 하는 말이다. 그녀는 자신을 놓아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한다. 심지어 돈 페르난도의 구애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다고 그의 사랑을 거절함을 분명히 말한다. 또한 그러지 못할 거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는 한순간도 자신이 돈 페르난도의 여자가 되기 싫다는 강한 의지의 결과이며, 여성은 남성의 사랑을 순응해야 한다는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죽음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위의 말을 하는 동안, 돈 페르난도가 루스신다를 두 팔로 꼭 껴안고 있어서 루스신다가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언급된다. 여성 인물인 루스신다는 남성 인물인 돈 페르난도를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

21) 위의 글, 138쪽.

22) 안주희, 앞의 글, 20쪽.

23) 위의 글, 20쪽.

24) 위의 글, 23쪽.

25) 안주희의 「[돈키호테] 속에 나타나는 근대적 요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세르반테스는 자유사상과 평등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작가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 대한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지만, 본 논고에서는 여성관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기에 ‘여성’에 대한 세르반테스의 자유사상만 다루고자 한다.

하게 전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루스신다는 자신의 의견을 남성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여성의 자유의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세르반테스가 추구한 여성상은 도로페아에 이르러서 정점을 찍는다. 도로페아는 루스신다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심지어 남성인 돈 페르난도의 생각을 바꾸기까지 한다. 도로페아는 농부이자 부자인 부모의 밑에서 정숙하게 자랐지만, 결혼 약속과 함께 돈 페르난도에게 농간당하고 버림받는 인물이다. 도로페아는 처음에 산 속에서 남장을 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당시의 사회상으로 젊은 여인이 자유롭게 남장을 하고 혼자 산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건 상당히 근대적으로 여성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⁶⁾

“당신이 사랑해줄 때까지 불행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여자, 불쌍한 도로페아입니다. …… 소녀는 오직 나리를 잊어야겠다는 가슴 아픈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리는 소녀가 나리의 것이기를 바라셨고, 그걸 원하셨기에, 지금은 비록 그렇지 않기를 바라셔도 나리는 소녀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나리는 아름다운 루스신다의 남자가 될 수 없으십니다, 나리는 소녀의 사랑이니깐요. 그분도 나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까르데니오 님의 사랑이니깐요. 나리께서 잘 생각해보시면, 나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자에게 마음을 돌리시는 게 더 쉬울 줄 아옵니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 1』, 562-563쪽.)

위는 자신을 버린 돈 페르난도를 마주하고 도로페아가 하는 말이다. 루스신다와 마찬가지로 도로페아 또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다. 도로페아는 한 번 자신이 버림받았음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돈 페르난도에게 사랑을 구애한다.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남성에게 버림받은 이후 자살을 선택하거나 수도원에 들어갔던 당시의 여성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보통 사랑을 구애하는 쪽은 남성이었을 뿐 아니라, 여성은 남성에게 버림받으면 그것에 대해선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도로페아는 돈 페르난도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다시 잡으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루스신다는 이미 까르데니오의 여자이니 그녀는 돈 페르난도의 것이 될 수 없다며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다.

“소녀의 신분 때문에 저를 사랑할 수 없으시더라도 소녀는 나리의 정식 부인이니 절 사랑해주셔야 해요. …… 나리의 피가 소녀의 피와 섞임으로써 혈통이 없어진다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세상의 귀족 가문 치고 이런 길을 걷지 않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여자들에게서 받은 혈통은 명문가의 후계를 이루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더구나 진짜 귀족이란 행실이 올바라야 하는데 나리께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할 소녀를 거부하고 과오를 저지르신다면 소녀가 나리보다 더욱 고결할 것입니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 1』, 563-564쪽.)

도로페아는 자신과 돈 페르난도의 신분 차이에 대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받은 혈통은 명문가의 후계를 이루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그러한 귀족 가문은 세상에 아주 많다고 말한다. 신분이 사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돈 페르난도를 설득하고 있다. 또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올바른 일이며, 진짜 귀족이라면 올바른 행위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을 거부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은 행동이니 그렇다면 자신이 돈 페르난도보다 더욱 고결할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26) 안주희, 앞의 글, 24쪽.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소녀는 나리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증거는 나리의 말씀이지요. 나리께서 거짓말을 하셨을 리도 없고 또 하셔도 안되지요. 소녀가 귀족이 아니라고 업신여기시니 나리께서는 귀족의 체통을 지키셔야죠. 나리께서 하신 언약이고, 또 증인은 하늘이니, 나리께서 소녀에게 언약하실 때 증인으로 부르셨으니까요. 이 모든 증인이 없다 해도 나리의 양심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 1』, 564쪽.)

위와 같이 도로페아는 돈 페르난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자신을 버리면 그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거짓말은 귀족의 체통을 어기는 행위라며 귀족인 돈 페르난도가 설득당하게끔 한다. 자신이 돈 페르난도의 아내인 사실은 변치 않음을 말하며, 그에게 루스신다를 놓아주고 자신에게 올 것을 다시 한번 구애한다. 당시 시대상을 보았을 때 여성이 남성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보기 힘든 광경이다. 도로페아는 시대상에 반하여 돈 페르난도를 설득하고 있다.

그는 몸을 낮추어 도로페아를 껴안으며 말했다. “일어나요, 나의 여인이여,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여인이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어서는 안되지요. …… 내가 그대에게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그대의 훌륭한 점을 존경할 줄 알게 하려는 뜻이었던 것 같소. …… 그 여자는 자기의 까르데니오와 오래오래 행복을 누리고 편안히 행복하게 살라고 합시다. 나는 나의 도로페아와 오래 행복하기를 하늘에 기도하겠소.”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 1』, 568-569쪽.)

돈 페르난도는 결국 도로페아의 말에 설득당하고 그녀의 말에 수긍한다. 돈 페르난도는 비열하고 못된, 엄청난 악인으로 묘사되는 인물이었다. 돈 페르난도라는 인물 단 한 명 때문에 까르데니오, 루스신다, 도로페아의 불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악인이, 도로페아의 말로 욕망은 누르고 이성을 찾는 인물이 되었다. 도로페아는 자신의 의사를 이성적으로 당당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남성인 돈 페르난도의 잘못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게 할 만큼 진취적인 인물이다. 결국 모두에게 행복이 찾아왔으며, 비극으로 끝날 것 같던 이들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이처럼 루스신다와 도로페아는 상황에 수긍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인물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개입하며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게끔 행동하는 인물이다. 그들은 남성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숙명적으로 따르고, 남성의 하명을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여성도, 남성으로부터 농락당하고 버림받아도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던 그 시대의 여성상도 아니다.²⁷⁾ 세르반테스는 17세기 당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돈 끼호테』에서 보여주고 있고, 근대적 사상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3. 순종적인 여성, 소라이다와 까밀라

작가 세르반테스는 마르셀라, 루스신다, 도로페아를 통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여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 인물도 존재한다. 3장에서 살펴보았던 모범소설집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보편적인 여성의 모습인 순종적인 여성상도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소라이다와 까밀라가 있다. 소라이다는 포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이고, 까밀라는 호기심 많은 시건방진 친구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이다. 이 둘은 앞서 살펴본 마르셀라, 루스신다, 도

27) 박철, 「돈키호테에 나타난 페미니즘」, 『중남미연구』 34(1), 2015, 132쪽.

로페아와는 달리 남성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두 여성 인물을 통해 세르반테스가 이중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혹은 단순히 근대적인 여성상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의 보편적인 여성상을 드러냈던 것인지 분석하여 보겠다.

소라이다는 아르헬 출신으로, 귀족 부자 아버지의 밑에서 부유하게 자란 무어인이지만,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인물이다. 그러기 위해 ‘포로’에게 엄청난 금화를 제공하며 자신을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부터 벗어나 성모 마리아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한다. 또한 결혼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소라이다는 스스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남성인 포로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의 곁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아, 적극성이 낮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여성상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자의 도움 없이 노새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는 도로페아와 달리, 남성의 도움을 받아 말에서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를 알 수 있다. 그녀는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연약한 가슴’의 소유자로 묘사되며, 실제로도 눈물도 많은 것을 보아 여린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모험을 떠나는 앞서 살펴본 세 여성 인물과는 달리, 포로가 데리고 다니는대로 따라다니기만 하는 모습에서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여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까밀라는 33장부터 35장까지 이어지는 호기심 많은 시건방진 친구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이다. 우정이 깊은 ‘두 친구’ 중 안셀모는 까밀라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그 당시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로, 남편은 부인을 가치 있는 재산으로서, 자랑하고 내보일 보석으로 다루지 않고 자물쇠를 채워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²⁸⁾ 그러한 당시의 시대상과 같이, 남편 안셀모는 아내 까밀라의 정숙함을 시험해보려고 한다. 2장에서도 언급했듯, 남성이 여성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 천성적으로 쾌락과 담합하는 존재로 평가했던 당시의 시대상이 그대로 반영된 상황이다.

안셀모는 …… 까밀라에게 전하기를, 자기는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돌아갈 것이니 절대 집에서 움직이거나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안셀모의 편지를 받고 까밀라는 놀랐고, 무엇보다 어리둥절한 것은 감히 집에 있을 수도, 게다가 부모 집으로 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집에 남아 있자니 정절의 문제가 위험하고, 떠난다고 하면 남편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되니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 1』, 516-517쪽.)

까밀라가 로파리오가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느껴 집 밖에 나가 있는 남편 안셀모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위와 같이 안셀모는 자신이 돌아갈 때까지 집에 머무르라고 답한다. 까밀라는 그의 명령대로 집에 있기로 결정하는데, 이는 명령에 복종하는 순종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남편의 명령에 복종하는 까밀라의 모습은 당시의 보편적인 여성상을 잘 보여준다. 까밀라는 처음에는 정절을 지키려 매우 노력하지만, 끝내 로파리오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 그녀는 정숙함을 잃었고, 결국 쾌락과 담합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세르반테스는 여성 인물 까밀라를 통해 당시의 시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여성상을 그렸다.

28) 안주희, 앞의 글, 23쪽.

이처럼 마르셀라, 루스신다, 도로페아가 근대적인 여성상인 것에 반해, 소라이다와 까밀라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대의 보편적인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작가 세르반테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상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본고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먼저, 작가가 그린 보편적인 여성상에서 나름의 특이점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소라이다의 경우, 성격은 암전하고 순종적이지만, 나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종교를 위해 아버지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 물론 여기서, 목표를 위해 스스로 행위한 것이 아니라 포로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온전히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였다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암전한 성격의 소유자임에도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또한 그것을 위해 포로에게 결혼을 협상조건으로 제시하며 도움을 청했다는 점에서 자유에 대한 적극성이 드러난다. 까밀라의 경우, 작가가 단순히 보편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까밀라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안셀모의 좌절과 죽음으로 결말을 맺는 것을 보아 당시에 흔한 일이었던 부인의 순결함을 시험하려고 했던 남편들을 비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부인 까밀라를 불명에 속에 빠뜨리는 일은 결국 남편 안셀모 역시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말하고자 했다.²⁹⁾ 더해서 마르셀라, 루스신다, 도로페아와 달리 소라이다와 까밀라에 대해서는 주변 인물의 말을 통한 성격에 대한 지지와 평가가 드러나지 않는다. 작가 세르반테스는 분명히 근대적인 여성상을 띠는 여성 인물들에게만 지지를 표하고 있다.

또한 『돈 키호테』는 전통적 리얼리즘에 바탕을 둔 작품으로, 17세기 초반의 작품인 『돈 키호테』에 그 당시 시대상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속에는 그 당시 여성의 보편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작가 세르반테스는 이를 넘어서서,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 인물을 작품에 드러냄으로써 그의 근대적인 여성관을 드러내었다. 순종적인 여성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리얼리즘적 관점에 따른 당시의 시대상의 당연한 반영일 뿐이며,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근대적인 여성상을 보이는 인물의 비중이 훨씬 높고, 그들만을 지지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주목해야 할 점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러한 여성 인물을 작품 속에서 나타내었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돈 키호테』는 ‘기사 소설의 비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속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근대적인 여성상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세르반테스는 여성 혐오주의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여성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근대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다. 『돈 키호테』나 『모범소설집』 등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일관적인 여성관은 ‘신중함, 지성, 이성적 판단, 아름다움을 미덕으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여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돈 키호테』에서는 사회의 관습에 억압당하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마르셀라, 루스신다, 도로페아와 같은 여성들을 보여준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사랑을 선택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인다. 소라이다와 까밀라와 같은 순종적인 여성상도 드러나지만, 그 여성 인물들을 통해 작가가 이중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 결론적으로, 세르반테스는 마르셀라를 통해 여성의 자유의지를,

29) 위의 글, 26쪽.

루스신다와 도로페아를 통해 남성과의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줄 아는 여성을 그리며 진보적인 여성관을 드러내었다. 그가 추구한 여성상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16~17세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이었다 할 수 있겠다.³⁰⁾

30) 위의 글, 132쪽.

<참고문헌>

- 미겔 데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 1』, 민용태 엮음, 창비, 2012.
- 미겔 데 세르반테스, 『모범소설집1』, 창비, 2020.
- 미겔 데 세르반테스, 『모범소설집2』, 창비, 2020.
- 강신규, 「『모범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목소리」,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강필운, 「수사적 비유 “현재법 (evidencia)” 연구:『돈키호테』 여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12(1), 2019, 1-23.
- 구효진, 「세르반테스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의 위상: 이혼 재판관을 통해 본 여성의 자율권」, 『중남미연구』 24(2), 2006, 385-405.
- 권정화, 「세르반테스의 양성적 사고: 『모범소설』의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현란, 「중세 유럽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 혐오 (misogyny) 와 숭배 (cult)-사회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27, 2011, 38-61.
- 박철, 「스페인문학: 세르반테스 문학세계에 나타난 유토피아」, 『스페인어문학(구 서어서문연구)』 30, 2004, 193-210.
- 박철, 「<스페인 문학> 세르반테스의 막간극에 나타난 여성의 자유」, 『스페인어문학 (구 서어서문연구)』 15, 1999, 563-585.
- 박철, 「돈키호테에 나타난 페미니즘」, 『중남미연구』 34(1), 2015, 125-144.
- 안주희, 「[돈키호테] 속에 나타나는 근대적 요소에 대한 연구」, 『중남미연구』 23(2), 2005, 18-28.
- 이준의, 「광기의 시대: [햄릿] 과 [돈키호테] 를 중심으로」, 『현대영어영문학』 65(2), 2021, 163-184.
- 주소영, 「『돈키호테』의 자기반영성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최정설, 「스페인문학: 여성의 미덕 (virtud) 과 자유연애를 통해서 본 세르반테스의 인문주의-모범소설을 중심으로」, 『스페인어문학 (구 서어서문연구)』 32, 2004, 261-277.
- 황정원,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자로서의 여성인물 연구 - 「햄릿」과 「오셀로」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